

明清時期 小兒推拿에 關한 文獻的 考察

정국훈 · 이송실 · 백진웅 · 이상재 · 김광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경희대학교 한의학연구소

Bibliographic Study on Pediatric Chuna(推拿) in the Myung · Chung(明清) Dynasties

Guo-Xun Ding, Song-Shil Lee, Jin-Woong Baek, Sang-Jae Lee & Kwang-Ho Kim

Dept. of Preventive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Institute of Korean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Abstract

Bibliographic study on pediatric Chuna in the Myung · Chung dynasties resulted as the following.

1. Pediatric Chuna experts in Myung dynasty utilized methods of Chuna to a great extent as means of preventing and treating various kinds of pediatric disorders.
2. Pediatric Chuna experts in Myung dynasty put emphasis on diagnosis through the doctor's inspection.
3. Pediatric Chuna experts in Myung dynasty developed and applied special acupoints for pediatric Chuna.
4. Pediatric Chuna experts in Myung dynasty put emphasis on replenishing and discharging according to hand manipulation.
5. Pediatric Chuna experts in Myung dynasty developed and applied methods of massaging with herbal medicine.
6. Pediatric Chuna experts in Myung dynasty put methods of Chuna into songs for handier use.
7. Pediatric Chuna experts in Chung dynasty corrected the errors of the predecessors and further developed the handed down advantages.
8. Pediatric Chuna experts in Chung dynasty specifically combined the theories of Chuna with characteristics of pediatric physiology.
9. Pediatric Chuna experts in Chung dynasty described treatments by symptoms systematically.

* Corresponding author : Guo-Xun Ding, Dept. of Oriental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82-2-961-0329 Fax : 82-2-959-5189 E-mail : prehan@hanmail.net

10. Pediatric Chuna experts in Chung dynasty, criticizing the trend at the time of despising pediatric Chuna, endeavored to spread pediatric Chuna.
11. Pediatric Chuna experts in Chung dynasty arranged the relationship between hand manipulation of Chuna and herbal medicine.
12. Pediatric Chuna experts in Chung dynasty arranged various kinds of methods for diagnosis, including diagnosis by palpation of the chest and the abdomen.
13. Pediatric Chuna experts in Chung dynasty combined the method of multiple hand manipulation and method of basic hand manipulation.
14. The theories of pediatric Chuna before Myung · Chung dynasties only put emphasis on Ki and Blood, not combining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Korean medicine like Eum/Yang and Five Phases. The scholars of Myung · Chung dynasties came to successfully combine the principles of Korean medicine like stability theory, Jang and Bu (internal organs) theory, and Eum-Yang theory with the theories of pediatric Chuna. This combination best characterizes the theories of pediatric Chuna in the Myung · Chung dynasties.

Key words : Bibliographic Study, Pediatric Chuna, Myung Chung Dynasties

락 같은 것으로 患兒의 病變 部位를 눌러줌으로써 疾病을 治療했다”⁴⁾고 記錄되어 있다. 또

1. 序 論

按摩라고도 불리는 推拿는 손 혹은 기타 身體 部位를 利用하여 皮膚, 肌肉, 穴位를 刺戟함으로써 健身益壽와 疾病의 豫防 및 治療 效果를 얻고자 하는 醫療 方法으로 이미 數 千年前부터 重視되어 왔다.

『黃帝內經·調經論』¹⁾에는 “按摩勿釋, 著鍼勿斥, 移氣於不足, 神氣乃得復”라고 記載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秦漢時期에 이미 推拿가 重要한 醫療 및 養生 手段으로 成立되었음을 알 수 있다.

推拿法 中에서도 小兒에 適用되는 推拿法을 小兒推拿라고 하는데, 이는 小兒의 生長發育를 促進시키고 疾病을 豫防 및 治療하는 매우 重要한 手段으로 취급되었다.

西漢의 『帛書』²⁾ 「五十二病方」³⁾에는 “순가

2) 1973年底, 長沙馬王推3號墓出土了大批醫藥帛書. 計有『足臂十一脈灸經』、『陰陽十一脈灸經』 甲本、『陰陽十一脈灸經』乙本、『脈經』、『陰陽脈死候』、『五十二病方』、『卻穀食氣』、『導引圖』、『養生方』、『雜病方』、『胎產書』等. 上述醫藥帛書在出土時原無名稱, 其名乃醫史和考古工作者根據他們的內容而定的. (傅維康: 中國醫學史,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p.45.)

3) 西漢1973年湖南長沙馬王推3號墓出土. 書體在篆隸之間. 寫在半幅帛上, 高24cm, 存459行, 1萬餘字. 彙有內科、外科、婦科、兒科、五官科等五十二類疾病治療的醫方. 每例病症開列一二個, 多至二十餘個處方. 所記病名一百零三種, 開列處方二百八十三個. 所用藥物二百四十七種, 期中過半數爲當時的藥物學專著『神農本草經』所未錄. 用藥之外, 還有浴法, 薰蒸法, 熨法, 灸法, 砭法和角法(類似拔火罐)等多種治療方法. 『帛書·五十二病方』是中國已發現最古的醫方書, (簡明中國文物辭典, 中國歷史博物館, 1991, 福建人民出版社, pp.221-222.)

1) 黃志傑譯: 黃帝內經, 북경, 科學技術出版社, 1999, p.142.

秦의 『肘後備急方』⁵⁾에는 “脊椎 部位를 눌러줌으로써 腹痛을 治療했다”고 記錄되어 있다. 또 唐의 『千金要方』⁶⁾에는 “비록 病이 없더라도 小兒의 凶上과 手足心에 膏藥을 발라 늘 문질러 주면 風寒을 避하는데 매우 效果가 크다”고 記錄되어 있다. 또 唐의 『外台備要』⁷⁾에는 “小兒가 밤새 울면서 잠을 잘 자지 못할 때에는 小兒의 머리와 脊椎를 按摩해주면 效果가 있다”고 記錄되어 있다. 또 宋의 『蘇沈良方』⁸⁾에는 “臍風과 口撮 등은 꼬집어줌으로써 治療할 수 있다”고 記錄되어 있다.

이처럼 明清時期 훨씬 이전의 著作에서도 小兒推拿에 關한 記錄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小兒推拿에 關한 獨특한 體系가 成立된 것은 明清時期라고 봐야 한다. 明清時期 이전에는 단지 일종의 經驗的 技法의 하나로 認識되다가 明清時期가 되어서야 비로소 韓醫學 理論과 接木되면서 理論的 體系를 갖추게 되었고, 이후 本格的으로 發展했기 때문이다.

明清代 推拿家들은 小兒推拿의 臨床應用法들을 廣範圍하게 聚合하여 『陳氏小兒按摩經』,⁹⁾ 『小兒推拿秘旨』,¹⁰⁾ 『小兒推拿仙術秘訣』,¹¹⁾ 『小兒

推拿廣意』,¹²⁾ 『厘正按摩要術』,¹³⁾ 『幼科鐵鏡』,¹⁴⁾ 『保赤推拿法』¹⁵⁾ 등 小兒推拿에 關한 많은 書籍을 著作하였는데, 이 著作들을 통해 明清代 小兒推拿理論의 特徵을 考察하는 것은 小兒推拿理論을 올바르게 理解하기 위해 반드시 必要的 研究라고 생각되어 본 研究를 착수하여 몇 가지 知見을 얻어 이에 發表 한다.

II. 本論

1. 明代的 小兒推拿 著書에 關한 考察

1) 『保嬰神術』에 關한 考察

現存하는 最初의 推拿 專門書이자 小兒推拿 專門書인 『保嬰神術』¹⁶⁾의 原著者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것이 없고 다만 四明陳氏라는 이름만 전해지고 있다.

『保嬰神術』은 明代的 鍼灸大家 楊繼洲가 지은 『鍼灸大成』의 第10卷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은 針灸類가 아니기 때문에 楊繼洲는 『按摩經』이라고 불렀고 後世 사람들은 小兒推拿에 대한 內容이라는 意味에서 『小兒按摩經』이라고 불렀다.

4) “因以七周嬰兒瘵所” (馬王推漢墓帛書整理小組編: 『五十二病方』, 文物出版社, 1979, p.42.)

5) 葛洪研究會編譯: 『抱樸子內篇肘後備急方今譯』,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220.

6) “小兒雖無病, 早起常以膏摩凶上及手足心, 甚避寒風.”

7) “小兒夜啼至明不安寐~亦以摩兒頭及脊驗.” (唐 王燾撰: 人民衛生出版社, 1955, p.986.)

8) “掐法治療臍風口撮等症”(本書亦稱 蘇沈內翰良方 宋, 蘇軾, 沈括著: 人民衛生出版社, 1956影印版, p.42.)

9) 原著, 明, 楊繼洲, 魯兆麟主校: 針灸大成校譯,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p.202-219.

10) 原著, 明, 龔廷賢, 主編胡國臣: 龔廷賢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1089-1133.

11) 明 周於藩

12) 清 熊應雄輯, 人民衛生出版社, 1956.

13) 清 張振鋆輯, 北京市中國書店出版社, 1986.

14) 清 夏鼎著: 『幼科三種』, 『幼科鐵鏡』, 台灣, 台聯國風出版社, 1975.

15) 清代醫家夏雲集著, 夏雲集, 字祥宇, 又字英白. 河南息縣人. 習舉業, 官至江蘇句容知縣. 兼通醫術, 擅長兒科推拿. 著『保赤推拿法』(又名『推拿精要保赤必備』)一卷(1885), 後有許敬興等之增釋本, 稱『增圖考釋推拿法』(1933年刊行) 本論文主要參考 1955年中醫書局出版的『增圖考釋推拿法』.

16) 查焯: 『保嬰神術』論小兒推拿, 『按摩與導引』, 2002年6月第18卷, 第3期, p.11.

『保嬰神術』은 요약컨대 小兒推拿를 利用하여 小兒科 病症을 豫防하고 治療할 수 있음을 밝힌 책인데, 그 內容을 仔細히 살펴보면 먼저 “五臟六腑受病源, 須憑手法推卽痊”¹⁷⁾라고 하여 小兒의 五臟六腑의 各種 疾病을 모두 推拿療法로 治療할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이 책에 收錄되어 있는 推拿로 治療할 수 있는 疾病으로는 驚風, 泄瀉, 痢疾, 傷風, 咳嗽, 哮喘, 胸悶, 胸痛, 小便短少, 大便秘結, 腹痛, 腹脹, 眼病, 頭痛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推拿療法이 小兒의 疾病을 治療하고 豫防하는 重要한 手段으로 廣範圍하게 利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小兒推拿에 이용된 穴位로는 針書에 收錄되어 있는 것 외에 따로 50 餘個의 小兒推拿專門穴을 說明하였는데, “脾土, 腎水, 肺經, 心經, 肝經, 大腸, 小腸, 板門, 橫門, 橫紋, 八卦, 三焦, 命門, 四橫紋, 天河水, 三關, 六髒, 陰, 陽, 五經, 精寧, 威靈, 二人上馬, 一窩風, 五指節, 六筋, 鬥肘, 螺螄骨, 洪池, 年壽, 風門, 鼻准, 山根, 囟門, 眉心, 鼻樑, 手背等. 有點, 線, 面, 三種”¹⁸⁾ 등이 그것이다. 이 穴들은 大部分多 頭面과 四肢, 特別히 兩肘 以下에 位置하고 있어 取穴과 操作이 매우 便利한 特徵이 있는데, 이 穴들은 小兒推拿에 運用되는 基本穴이 되었는데, 이 內容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책에 收錄되어 있는 手技法으로는 “掐, 柔, 推, 案, 摩, 運, 搖, 搓, 分, 合”¹⁹⁾ 등이 있다. 또 多樣한 複合 手技法 및 主治功用이 “手訣手法治病訣”에 收錄되어 있는데 “水底撈月, 按弦搓摩, 黃蜂出洞, 鳳凰單展翅, 打馬過河, 天門入虎口, 猿猴摘果, 赤鳳搖尾, 運水入土, 運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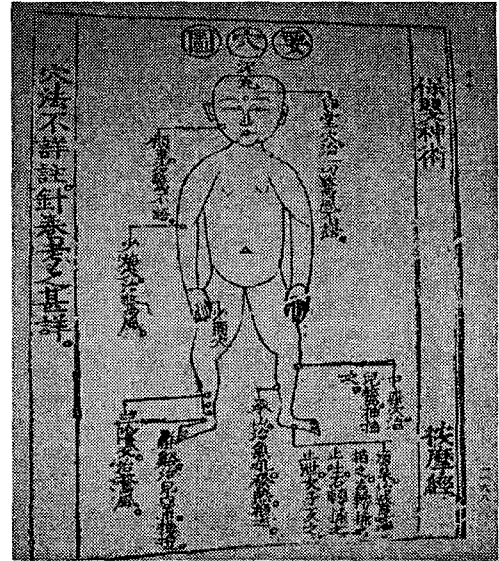


그림 1. { 小兒按摩經 }의 요혈도²⁰⁾

入水”²¹⁾ 등 20 餘種의 手法은 至今까지 傳해지고 있다.

小兒科는 다른 말로 啞科라고도 하는데, 小兒는 어려서 正確하게 自身의 病症을 敍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醫師들은 스스로 患兒를 觀察한 후 診斷을 내려야한다. 이 때문에 『保嬰神術』역시 “凡看小兒病, 先觀形色, 切脈次之”²²⁾라 하여 望診을 매우 重視하였다. 그래서 이 책에 說明된 診斷法은 大部分 望診과 關聯된 것이다. 예를 들어 「觀形色色法」에는 面部의 五位와 五色에 따른 主病 및 五臟 主病의 特徵, 그리고 五臟 病變의 虛實 區別法이 收錄되어 있다. 또 「論色歌」에는 目內主病과 人中, 龍角, 虎角, 印堂, 眉毛, 眉間의 望診法이 收錄되어 있다. 또 「認筋法歌」에는 小兒指紋을 이용한 驚風 診斷法이 收錄되어 있다. 또

17) 原著, 明, 楊繼洲, 魯兆麟主校: 針灸大成校譯,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18) 查焯: 『保嬰神術』論小兒推拿, 『按摩與導引』2002年6月第18卷第3期, p.11.

19) 查焯: 『保嬰神術』論小兒推拿, 『按摩與導引』2002年6月第18卷第3期 p.11.

20) 原著, 明, 楊繼洲: 針灸大成, 中國, 岳麓書社出版社, 1993, p.1168.

21) 查焯: 『保嬰神術』論小兒推拿, 『按摩與導引』2002年6月第18卷第3期 p.11.

22) 原著, 明, 楊繼洲, 魯兆麟主校: 針灸大成校譯,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203.

「病症生死歌」에는 疾病의 預後가 收錄되어 있다. 이 외에도 「面部五色歌」 「命門部位歌」 「面色圖歌」 「察色驗病生死訣」 「內八段錦」 「外八段錦」 「手面圖」 「識病歌」 「陳氏經脈辨色歌」 「五色歌」 등에 小兒望診에 對한 多様な 論述이 收錄되어 있다. 이와 같은 望診에 對한 論述은 책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保嬰神術』이 얼마나 小兒望診을 重視했는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으면 그림2와 같다.



그림 2. { 小兒按摩經 }의 命門部位歌와 面色圖歌²³⁾

이 책은 또 “視病之虛實，需則補其母鵝，實則瀉其子也。”²⁴⁾라고 하여 補瀉를 重視하였는데, 이처럼 推拿에 補瀉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매우 重大한 進步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掐脾土，曲指左轉爲補，直推之爲瀉。”²⁵⁾ “脾土曲補直爲推”，“腎水一紋是後溪，推下爲補上青之。”라고 하여 操作方向에 따라 補瀉가 決定됨을 분

명히 言及하였다.

또 “俱有下數不亂推”²⁶⁾라고 하여 手法操作의 次數와 時間의 長短, 亂推, 多推, 少推, 都會 등을 주의하여야만 적절한 治療效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 외에도 “總筋脾土推七百.”²⁷⁾ “六府退之四百下.”²⁸⁾ “推三關一百，補脾土，推肺經各二百”²⁹⁾ 등 手法의 횟수에 대한 論述이 많이 있는데, 이를 통해 手法의 횟수를 매우 重視했음을 알 수 있다.

以上の 考察 結果를 總括할 때 現存하는 最初의 小兒推拿專門書인 『保嬰神術』은 推拿療法으로 治療할 수 있는 多様な 小兒 病症의 敘述, 小兒推拿 專門穴의 敘述, 複合 手技法 및 主治功用의 敘述, 多様な 望診法 敘述, 補瀉法 및 推拿 횟수의 重要性에 關한 敘述 등을 통해 小兒推拿 發展에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한 著作이라고 생각한다.

2) 『小兒推拿秘旨』³⁰⁾에 關한 考察

『小兒推拿秘旨』은 『小兒推拿方脈活嬰秘旨全書』 혹은 『小兒推拿活嬰全書』라고도 하는데, 龔廷賢³¹⁾이 小兒推拿 및 按摩療法에 關한 既存

23) 原著, 明, 楊繼洲: 針灸大成, 중국, 岳麓書社出版社, 93年版, p.1178.

24) 原著, 明, 楊繼洲, 魯兆麟 主校: 針灸大成校譯,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203.

25) 原著, 明, 楊繼洲, 魯兆麟 主校: 針灸大成校譯,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208.

26) 原著, 明, 楊繼洲, 魯兆麟 主校: 針灸大成校譯,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202.

27) 原著, 明, 楊繼洲, 魯兆麟 主校: 針灸大成校譯,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203.

28) 原著, 明, 楊繼洲, 魯兆麟 主校: 針灸大成校譯,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203.

29) 原著, 明, 楊繼洲, 魯兆麟 主校: 針灸大成校譯,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213.

30) 原書2卷 (後人又將下卷再析爲2卷) 明·龔廷賢撰, 姚國禎補輯, 1604.

31) 原名廷賢, 字子才, 早年不得意時, 曾隱居在家鄉的雲林山中, 因此取別號爲“雲林”後來, 他在 萬曆十六年 (1588年) 替周藩海陽王勤東治好了疾病, 才慢慢有了名望, 最後又作了太醫. (江靜波校定: 小兒推拿方脈活嬰秘旨全書, 중국, 江蘇人民出版社, 1958, 江靜波 叙)

의 研究 成果를 總括하고 그 基礎 위에 自身의 臨床實踐 成果를 結合하여 編纂한 책이다.

이 책의 全體의인 構成을 살펴보면 책의 앞부분에는 小兒變蒸, 驚風, 諸疳, 吐瀉의 四病의 病因病機 및 證治가 仔細히 敍述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小兒科의 診法, 推拿手法, 穴位, 其他 外治方法이 論述되어 있다. 책의 뒷부분에는 小兒科의 多樣한 疾病을 歌訣로 編成하고 아울러 各種 疾病의 方藥治法을 論述하였다.

이 책에는 掌上, 掌面, 掌背와 足背에 있는 諸穴의 推拿手法 및 主病에 대해 詳細히 論述되어 있고 또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또 藥物과 按摩法을 結合한 藥摩之法에 對한 論述도 되어 있는데, “夜啼驚, 用生薑, 潮粉, 桃皮, 飛鹽推”³²⁾, “兔絲驚, 二十□□水底撈明月□□, 蔥水推之, 蛤粉擦.”³³⁾ 등의 言及을 例로 들 수 있다.

또 “一有疾病, 即可醫治, 手到病除, 效驗立見, 洵保赤之良法也”³⁴⁾라고 하여 推拿가 小兒 疾病 治療에 매우 效果의인 手段임을 強調하였다.

또 穴位와 推拿治法을 歌訣로 整理하여 쉽게 記憶할 수 있게 하였는데, 특히 十二種의 推拿手技法 名稱, 功效, 操作法, 適應症을 分明하게 論述하였다.

또 推拿를 利用한 小兒 救急法과 護理法 等에 關해 論述하였다.

以上の 考察 結果를 總括할 때 曹炳章³⁵⁾이

“推拿最善之本”³⁶⁾이라고 꼽은 『小兒推拿秘旨』는 推拿手技法 및 主病의 敍述, 藥摩之法에 關한 敍述, 穴位와 推拿治法의 歌訣化, 十二種 推拿手技法에 關한 敍述, 推拿를 利用한 小兒 救急法과 護理法에 關한 敍述 等を 通해 小兒 推拿 發展에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한 著作이라고 생각한다.

3) 『小兒推拿秘訣』에 關한 考察

周於蕃³⁷⁾이 編纂한 『小兒推拿秘訣』에는 陽掌(掌面)訣法과 陰掌(掌背)訣法이 記述되어 있다. 또 “身中十二拿法”의 穴位와 功效가 익히기 매우 쉽도록 簡潔하게 記述되어 있다.

또 이 책에는 蔥姜湯推法, 用艾絨敷臍法, 用蔥搗捏成講敷穴法 等과 診法, 推拿手法, 穴位等이 記述되어 있으며 推拿 汗吐下說, 節飲食說, 字法 等도 記述되어 있다. 以上の 考察 結果를 總括할 때 『小兒推拿秘訣』은 小兒推拿 發展에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한 著作이라고 생각한다.

4) 明代 小兒推拿 理論의 特徵

위에서 언급한 세 권의 小兒推拿 專門書 外

加反對“取締中醫案”의 請願大會. 20年, 被推爲中央國醫館名譽理事, 又任紹興縣國醫公會常務主席. 建國後, 浙江省衛生廳聘爲『浙江中醫月刊』名譽總編輯. 精內, 婦, 兒科, 尤擅喉症. 性爽直, 待病人如家人, 遇急難, 除免收診費, 還常代付藥資. 一生著述甚豐. 主持編輯的 『中國醫藥大成』, 輯錄歷代珍本, 善本醫著及自撰醫藥論說計365種, 惜因戰亂, 刊印未半而停, 個人著作已印行者, 有『喉痧證治要略』, 『秋瘟證治要略』, 『彩圖辨舌指南』等, 尙有未印手稿多種.

36) 林曉潔: 小兒推拿의 起源及發展, 按摩與導引, 1994年第3期, p.34.

37) 字岳夫, 蒲圻(今屬湖北)人. 精醫, 尤長於推拿術, 1605.

32) 江靜波校定: 小兒推拿方脈活嬰秘旨全書, 江蘇人民出版社出版 1958, p.51.

33) 江靜波校定: 小兒推拿方脈活嬰秘旨全書, 江蘇人民出版社出版 1958, p.18.

34) 江靜波 校定: 小兒推拿方脈活嬰秘旨全書, 江蘇人民出版社出版 1958, 序.

35) 曹炳章(1878~1956), 又名彬章, 彬笙, 字赤電, 原籍鄞縣, 幼隨父遷居紹興. 先在中藥鋪當學徒, 後學醫. 清光緒二十八年(1902), 懸壺開業, 參與創組紹郡醫藥學研究社, 編輯『紹興醫藥月報』. 民國18年(1929), 赴上海參

에도 小兒推拿에 대한 중요 논술이 되어 있는 책으로는 『袖珍小兒方』을 들 수 있다. 『袖珍小兒方』은 徐用軒이 明 이전의 小兒諸家驗方을 72門, 624方으로 광범위하게 정리하였다. 이후 1574년에 經莊應이 『補要袖珍小兒方論』에서 “秘傳看驚掐驚口授手法訣”、“穴道訣·手穴經絡圖”、“男左女右圖”、“穴道脚面圖”、“家傳秘訣”、“總穴圖、辯證穴法”등을 보충하여 다시 정리하였는데, 이 두 論述은 後世 小兒推拿 專門書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쳐 많은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었다.

明代에 推拿가 얼마나 發展했었는지는 國家 醫療機構인 太醫院 內 十三科 中 ‘按摩科’ 가 있었던 걸로 미루어볼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小兒推拿에 關한 세 권의 책이 크게 기여하였다. 즉 『保嬰神術』 『小兒推拿秘旨』 『小兒推拿秘訣』이明代에 매우 널리 퍼져 推拿療法이 小兒科에 適用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結果 明代 推拿法이 크게 發展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卷의 책의 特徵이 곧 明代 小兒推拿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明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多樣한 小兒 病症을 豫防하고 治療하는 重要한 手段으로 推拿法을 廣範圍하게 應用하였다.

둘째, 明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望診法을 重視하였다.

셋째, 明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小兒推拿 專門穴을 開發 및 應用하였다.

넷째, 明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手技法에 따른 補瀉를 重視하였다.

다섯째, 明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藥摩之法을 開發 및 應用하였다.

여섯째, 明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簡便한 使用을 위해 推拿治法을 歌訣化하였다.

2. 清代의 小兒推拿 著書에 關한 考察

清代에는 略 20 餘種의 小兒推拿 專門書가 있고, 또 小兒推拿에 關한 內容이 收錄되어 있는 小兒科 專門書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 모두를 考察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重複되는 內容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代表的인 著作들만 考察하고자 한다.

1) 『小兒推拿廣意』³⁸⁾에 關한 考察

『小兒推拿廣意』는 『幼科推拿廣意』 혹은 『推拿廣意』라고도 하는데, 總 3卷으로 이루어져 있다. 上卷은 總論으로 推拿 原理, 小兒科 疾病의 診斷 方法, 그리고 推拿手法를 표현한 20餘個의 그림이 收錄되어 있고, 예를 들으면 그림 3, 4와 같다. 中卷에는 各種 小兒科 常見疾病의 推拿療法이, 下卷에는 附方과 小兒病의 內服 및 外治 藥方 180餘個가 收錄되어 있다.

收錄 內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推拿一道, 眞能操造化奪天工矣”³⁹⁾라 하여 推拿가 小兒疾病에 特殊한 治療效果가 있음을 強調하였다. 그리고 “爲父母者,

不思(小兒)所以得病之由, 卻之病理, 乃反疑鬼疑神, 師巫祈禱”⁴⁰⁾라 하여 그릇된 風潮를 批判하였다.

또 熊應雄은 辨證論治를 매우 重視하여 各種 小兒科 疾病을 23門으로 나눠 各各의 證因論治를 仔細히 敍述하였다. 예를 들어 〈腹痛門〉에서는 “大凡腹痛初非一, 不特症痕與痰癖, 分條析類症多端, 看取論中最詳悉. 蓋小兒腹痛有寒有熱, 有食積, 症痕, 偏墜, 寒疝, 及疔

38) 三卷. 清·熊應雄輯. 約刊於1676年.

39) 幼科三種, 推拿廣義總論, 台灣, 台聯國風出版社, 中華民國64年(1975), p.121.

40) 幼科三種, 推拿廣義總論, 台灣, 台聯國風出版社, 中華民國64年(1975), p.121.

41) 小兒推拿廣意,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56, p.38.



그림 3. {小兒推拿廣意}의 運太陽圖⁴¹⁾



그림 4. {小兒推拿廣意}의 推攢竹豆⁴²⁾

蟲動痛, 諸痛不同, 其名亦異, 故不可一概而論之. 熱腹痛者, 乃時痛時止是也. 暑月最多. 治法: 三關, 六腑, 推脾土, 分陰重陽輕, 黃蜂入洞, 四橫紋. 寒腹痛者, 常痛而無增減也. 治法:

42) 小兒推拿廣意, 중국, 人民衛生出版社, 1956, p.37.

三關, 運五經, 二扇門, 一窩風, 按弦搓摩, 八卦, 揉臍及龜尾, 氣滯食積而痛者, 卒痛便秘, 心胸高起, 手不可按是也. 治法: 推三關, 分陰陽, 推脾土, 揉臍及龜尾, 掐威靈, 若腹內膨脹, 推大腸. 冷氣心痛者, 手足厥冷, 遍身冷汗, 甚則手足甲青黑, 脈沉細微是也. 治法: 推三關, 八卦, 分陰重陽輕, 補腎, 二扇門, 黃蜂入洞, 鳩尾前後重揉, 要蔥薑推之發汗”⁴³⁾라고 하여 腹痛을 熱腹痛, 寒腹痛, 氣滯食積而痛, 冷氣心痛의 4種類로 辨證分型하고 各各의 治療法을 詳細히 論述하였다.

以上の 考察 結果를 總括할 때 『小兒推拿廣意』는 推拿 理論과 小兒生理特徵의 具體的 接木 等を 通해 小兒推拿 發展에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한 著作이라고 생각한다.

2) 『幼科鐵鏡』⁴⁴⁾에 關한 考察

夏愚鑄가 지은 『幼科鐵鏡』은 비록 推拿 專門 書는 아니지만 既存의 小兒推拿 理論을 繼承 하고 거기에 自身의 獨特한 見解를 追加한 著 書로써 沈應奎⁴⁵⁾는 “遇有並相符, 無衣可就之時, 亦可按法救治, 不致維庸手所誤, 誠醫門之鐵案, 幼科之寶鏡也”⁴⁶⁾라는 言及을 通해, 博維康은 “『幼科鐵鏡』特別重視應用小兒推拿法治療各類兒科疾病, 內容雖不多, 僅爲兒科病治法之一, 但多效雁, 簡便, 受到後世醫家重視”⁴⁷⁾라는 言及을 通해 매우 重要한 著作이라고 評價하였다.

收錄 內容을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먼저 夏

43) 幼科三種, 台灣, 台聯國風出版社, 中華民國 64年(1975), p.73.

44) 夏愚鑄 清 康熙年間名儒, 知識淵博, 醫術高明, 特別是小兒科領域, 頗有研究. 1695年寫成的 『幼科鐵鏡』.

45) 光緒年間 臺灣 布政使

46) 清 夏愚鑄著: 幼科鐵鏡, 敘, 上海衛生出版社, 1958, p.1.

47) 博維康 主編: 針灸推拿史

愚鑄는 “凡推拿，古人以之代藥，後人竟以推拿爲兒戲，並不知推應何經，拿應何髒，所代何藥，以致輕症加重，重予速死……藥味既不可亂投，推拿又何可亂用”⁴⁸⁾라 하여 小兒推拿를 輕視하는 當時 風潮를 批判하였다.

그는 「拿代藥賦」에서 “寒熱溫平，藥之四性。推拿柔掐，性與藥同。用推卽是用藥，不明何可亂推”⁴⁹⁾라고 하였는데, 이는 推, 拿, 柔, 掐의 四種의 手法과 藥物의 寒, 熱, 溫, 平의 四性은 類似한 體系이므로 推拿를 올바르게 施術하면 藥物과 同一한 效果를 얻을 수 있다는 意味이다. 즉 그는 小兒病의 경우 推拿가 藥을 代身할 수 있다고 認識한 것이다.

또 그는 推三關, 退六腑의 手技法에 關해 “左手直骨背面爲三關，難以推上爲熱爲補，治療虛症寒症；女已推上爲寒爲涼，治療實證熱證。左手直骨正面爲六腑，退下，男子爲寒爲瀉，治療實證熱證，女子爲熱爲補，治療陰證寒證”⁵⁰⁾라고 論述하였다.

또 그는 “脾土穴，醫書上畫拇指是側面，又在旁邊注明脾土，形成人們的視覺錯誤，認爲脾土穴在拇指撓側緣，作者根據自己認真分析思考，認爲脾土穴應在拇指螺紋面，前人此穴推之不效，多半是這一原因所致，前人的錯誤後人不能再犯了”⁵¹⁾ 등의 論述을 통해 前人的 錯誤라고 생각되는 部分을 과감하게 改正하였다.

또 그는 男女 모두 左手를 利用해야 한다고 主張하면서 「運八卦」에서 “熱證從坎向乾的方向旋推至艮，寒證則從艮向震的方向旋推至坎. …

從坎向乾的方向旋推至艮，有引水濟火之義；從艮向震方向旋推至坎，有引離入水之意”⁵²⁾라고 하여 八卦를 利用한 手技法을 具體的으로 論述하였다. 이상 내용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5, 6과 같다.

또 “如驚痰築甚盛，昏昏不省人事，於不抽掣時，把精，威，二穴對拿緊，…亦無掙聲的模樣，將兒面向我，以我兩手騎兒肩，大指握前，以第二指病，狠狠揉肺俞兩穴，聲雖不出，一掙一掙…卻是個緊閉著口…有聲無音的樣子，此乃肺被痰築，…定是活症”⁵⁴⁾ “眼翻氣築時，於氣海穴，以手指曲節抵之，一放即活”⁵⁵⁾ “取喉內痰，將兒中指持至尖，數下，推湧泉穴，左轉不揉，以指對抵頰



그림 5. {幼科鐵鏡}의 手掌正面形圖⁵³⁾

48) 清 夏鼎 著: 幼科三種, 幼科鐵鏡, 台灣, 台聯國風出版社 1975, p.67.
 49) 清 夏鼎 著: 幼科三種, 幼科鐵鏡, 台灣, 台聯國風出版社 1975, p.79.
 50) 清 夏鼎 著: 幼科三種, 幼科鐵鏡, 台灣, 台聯國風出版社 1975, p.75.
 51) 原文“夏愚鑄曰大指面屬脾~後人幸勿再誤.” 清 夏鼎 著: 幼科三種, 幼科鐵鏡, 台灣, 台聯國風出版社 中華民國64年 (1975), p.74.

52) 清 夏鼎 著: 幼科三種, 幼科鐵鏡, 台灣, 台聯國風出版社 1975, p.84.
 53) 清 夏鼎 著: 幼科三種, 幼科鐵鏡, 台灣, 台聯國風出版社 1975, p.84.
 54) 清 夏鼎 著: 幼科三種, 幼科鐵鏡, 台灣, 台聯國風出版社 1975, p.87.
 55) 清 夏鼎 著: 幼科三種, 幼科鐵鏡, 台灣, 台聯國風出版社 1975, p.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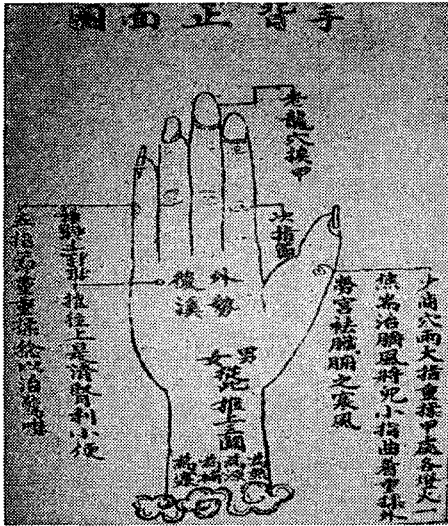


그림 6. 『幼科鐵鏡』의 手背正面圖⁵⁷⁾

車穴, 以耳挖爬舌上, 卽吐.”⁵⁶⁾ 등의 論述을 通해 具體的 病症別 治療法을 많이 言及하였다.

以上의 考察 結果를 總括할 때 『幼科鐵鏡』은 小兒推拿를 輕視하는 當時 風潮에 對한 批判, 前人의 錯誤 改正, 具體的 病症別 治療法 言及 等を 通해 小兒推拿 發展에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한 著作이라고 생각한다.

3) 『保赤推拿法』⁵⁸⁾에 關한 考察

『保赤推拿法』은 夏雲集⁵⁹⁾이 지은 小兒科 推

拿 專門書로써 86種의 推拿法이 收錄되어 있다.

具體的 收錄 內容을 살펴보면 “開天門法：凡推, 皆用蔥姜水浸醫人大指；若兒病重者, 須以麝香末黏醫人指上用之. 先從眉心向額上推, 推二十四數, 謂之開天門”⁶⁰⁾, “釋分陰陽法：正面掌肱交界之橫紋兩頭, 既陰陽二穴. 小指邊爲陰穴, 大指邊爲陽穴. 就橫紋上, 兩指中分, 向兩邊抹, 爲分陰陽. 治寒熱往來, 膨脹, 泄瀉, 嘔膩, 臟腑結”⁶¹⁾ 등의 論述을 通해 輔助藥物, 推拿部位, 推拿順序, 推拿次數, 臨床應用方法이 알기 쉽게 一目了然하게 記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亂推亂拿 … 不惟無益, 而又害之 … 俾有恙之嬰兒, 不至爲庸醫村婦所害”⁶²⁾라는 言及을 通해 庸醫의 誤治를 批判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著作하였음을 밝혔다.

또 “拿者, 總言以醫手在兒經穴以用諸法也；推者, 醫指按兒經穴, 擠而上下之也；掐者, 醫指頭在兒經穴, 輕入而向後出也；搓者, 醫指頭在兒經穴, 往來摩之也；搖者, 或于兒頭, 或于兒手, 使之動也；撚者, 醫以兩手捏而皮, 微用力而略動也；扯者, 于兒皮輕輕頻捏之而頻棄之；揉者, 醫以指按兒經穴, 不離其處而旋轉之也”⁶³⁾ 라고 하여 各種 推拿 手法의 操作 方法을 쉽고 簡潔하게 說明하였다.

또 “己之大指食指皆不可修留指甲, 但以指頭肉用力”, “上半日陽氣正盛, 在兒關竅推拿, 多不能入”⁶⁴⁾ 라고 하여 手法의 時間 및 注意事

56) 清 夏鼎 著: 幼科三種, 幼科鐵鏡, 台灣, 台聯國風出版社 1975, p.89.

57) 清 夏鼎 著: 幼科三種, 幼科鐵鏡, 台灣, 台聯國風出版社 1975, p.85.

58) 本論文主要參考 夏雲集, 著, 許敬興增釋: 增圖考釋推拿法, 中國, 中醫書局, 1955.

59) 字英白, 號祥宇. 清代河南新息(今河南息縣)人. 幼習學子業, 後爲呂稟生, 官至江蘇句容知縣. 因其家族中世有業醫精推拿術者, 故他于“習學業, 制藝之餘”亦兼習兒科推拿. 凡有病求醫者, 卽爲治之. 後官游金陵(今江蘇南京), 掌辦育嬰堂, 其術得以充分施展. 他在棄官歸隱之前, 因不忍自私, 乃博采歷

代醫書所載經絡, 穴竅, 互證旁參; 復將各推拿書與家傳經驗密訣, 采擇會歸, 集成一帙, 名曰『保赤推拿法』(又名『推拿精要保赤必備』), 於1885年序之刊世.

60) 夏雲集著, 許敬興增釋: 增圖考釋推拿法, 中國, 中醫書局, 1955, p.1.

61) 夏雲集著, 許敬興增釋: 增圖考釋推拿法, 中國, 中醫書局, 1955, p.29.

62) 夏雲集著, 許敬興增釋: 增圖考釋推拿法, 中國, 中醫書局, 1955, 原序.

63) 夏雲集著, 許敬興增釋: 增圖考釋推拿法, 中國, 中醫書局, 1955, 前言p.8.

項에 대해 論述하였다.

또 “具全副善念慈心, 無半點浮詞躁氣”⁶⁵⁾ 라고 하여 推拿를 施術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言及하였다.

또 推拿 手技法을 藥과 比較한 “推拿法與藥相通 如 推上三關 可以帶麻黃, 肉桂; 退下六腑 能夠替滑石, 羚羊; 水底撈月 功用黃連, 犀角; 天河引水 效如芩, 柏, 連; 大指脾面旋推 味似人參, 白術; 脾經向下撚之 性比造土, 石膏; 湧泉右推不揉, 與厚樸, 芒硝無異; 一推一揉右轉 與人參, 白術無殊; 食指瀉肺, 功比桑皮, 桔梗; 旋推止咳 效賽五味, 冬花; 黃蜂出洞 勝過防風, 羌活; 捧耳搖頭 超越生地, 木香; 左揉湧泉 類砂仁, 藿葉; 重揉後背 仿白芍, 川芎 …”⁶⁶⁾ 라는 論述도 하였다.

또 “推上三關法, 男向上推爲加熱, 宜於寒症; 女向上推爲加涼, 宜於熱症”라고 하여 症狀에 맞는 適切한 推拿法의 使用이 重要함을 言及하였다.

이 외에도 推拿 횟수, 小兒의 大小強弱에 따른 手技法의 差異 等에 對해서도 言及하였다.

以上の 考察 結果를 總括할 때 『保赤推拿法』은 86種의 推拿法 收錄, 補助藥物, 推拿部位, 推拿順序, 推拿次數, 臨床應用方法, 各種 手技法, 手技法의 時間 및 注意事項 等의 一目了然한 記述, 庸醫의 推拿誤用에 對한 批判, 推拿 施術者의 마음가짐, 推拿 手技法과 藥의 關係 記述 等을 통해 小兒推拿 發展에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한 著作이라고 생각한다.

4) 『厘正按摩要術』⁶⁷⁾에 關한 考察

『厘正按摩要術』은 張振鋈⁶⁸⁾이 지은 小兒科 推拿專門書로써 『小兒推拿秘訣』을 바탕으로 삼고 거기에 새로운 內容을 增補하여 著述한 책이다.

여러 文獻을 參考하여 比較的 많은 內容을 收錄하고 있으면서도 編制가 條理整然하다는 評價를 받고 있는 『厘正按摩要術』은 總 四卷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卷에는 四診法, 按胸腹法, 望診法 等의 小兒科 診斷法이 收錄되어 있고 2卷에는 按摩, 推, 運, 掐, 揉, 搓, 搖 等의 各種 按摩手技法과 其他 28種의 外治法이 3卷에는 十四經脈經穴位圖와 小兒科 推拿의 各種 取穴 및 手技法圖가 4卷에는 驚風, 疳疾 等 24種類의 病症 및 推拿法이 收錄되어 있다.

具體的 收錄 內容을 살펴보면 “按摩一法北人常用之, …南人專以治小兒, 名曰推拿”⁶⁹⁾라는 言及을 통해 當時 小兒推拿가 이미 廣範圍하게 行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厘正按摩要術』에는 38種의 按胸腹하는 方法이 收錄되어 있는데, “謂之大絡, 名曰虛裏, 在左乳三寸下. 其動微而不見, 爲不及, 宗氣內虛也, 或動而應衣, 爲太過, 宗氣外泄也. 若三四至一止, 五六至一止, 主有積聚也, 若絕不至者危 … 平人膻中靜者爲佳. 虛裏者, 脈之宗氣也. 視之不見, 按之漸動, 如應如不應者爲級. 若胸中陽氣衰, 其動高逾乳, 至中府, 雲門若凶. 虛勞癆瘵 逐日動高者, 爲無治”⁷⁰⁾라는 論述을 例로 들 수 있다.

64) 夏雲集著, 許敬興增釋: 增圖考釋推拿法, 중국, 中醫書局, 1955, 前言pp.8-9.

65) 夏雲集著, 許敬興增釋: 增圖考釋推拿法, 중국, 中醫書局, 1955, 前言p.8.

66) 夏雲集著, 許敬興增釋: 增圖考釋推拿法, 중국, 中醫書局, 1955, 前言p.10.

67) 清·張振鋈輯, 1889年, 本書是在明·周于蕃『小兒推拿秘訣』一書基礎上, 進一步校訂補輯而成.

68) 夏雲集著, 許敬興增釋: 增圖考釋推拿法, 중국, 中醫書局, 1955, p.23.

69) 清 張振鋈 輯: 厘正按摩要術, 北京, 中國書店出版社, 1986, p.3.

70) 清 張振鋈 輯: 厘正按摩要術, 北京, 中國書店出版社, 1986, p.28.

또 『厘正按摩要術』에는 小兒推拿에 常用되는 手技法이 小兒推拿八法 卽 按, 摩, 掐, 揉, 推, 運, 搓, 搖의 8種類로 總括 整理되어 있는데, 前人の 觀點을 基本的으로 따르면서도 獨特한 複式 手技法을 添加한 方式으로 記述되어 있다. 즉 多數의 複式手技法이 8種의 基本手法과 結合되어 具體的으로 運用되는 方法이 收錄되어 있는데 □□黃蜂入洞, 就是兩手指端在小兒鼻孔下揉動幾十次, 是揉法的具體運用; 退六腑, 乃是用拇指螺紋面或撓側面在前臂六腑穴上作由上向下的直線運動, 是推法的具體運用. □□71)을 例로 들 수 있다.

以上の 考察 結果를 總括할 때 『厘正按摩要術』은 38種의 按胸腹法 收錄, 複式手技法과 基本手技法의 結合에 關한 記述 等を 通해 小兒推拿 發展에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한 著作이라고 생각한다.

5) 其他 清代 小兒推拿 著作에 關한 考察

지금까지 考察해 본 책 外에도 한 번쯤 살펴 봐야 할 清代 小兒推拿에 關한 著作으로는 『幼科推拿秘書』72) 『推拿三字經』 『推拿指南』을 꼽을 수 있다.

『幼科推拿秘書』는 駱如龍73)이 撰한 책으로 42種의 推拿法, 13大手法(複合操作法)이 收錄되어 있고 또 小兒推拿特定穴과 經絡과의 關係에 對한 研究 內容이 最初로 收錄되어 있다는 點이 特徵이라 할 수 있다.

『推拿三字經』은 徐謙光74)이 撰한 책으로 의 우기 쉽게 三字句로 이루어져 있다는 點, 取穴 數는 적고 操作 횟수는 많은 治療方法, 推拿法을 歌賦로 整理한 點, 그리고 특히 小兒 推拿

手法을 成人에게까지 擴大適用하려는 點을 特徵이라 할 수 있다.

『推拿指南』은 唐元瑞75)가 撰한 책으로 各種 眼疾의 推拿治療法이 收錄되어 있다는 點이 特徵이라 할 수 있다.

6) 清代 小兒推拿 理論의 特徵

清代에는 明代에 이룩한 成果를 基礎로 推拿 理論을 不斷히 發展시켰으며, 그 때 이룩한 成果 中의 一部는 現在까지도 小兒科 疾患을 治療하는데 重要하게 應用되고 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小兒推拿에 關한 일곱 권의 책이 크게 기여하였다. 즉 『小兒推拿廣意』 『幼科鐵鏡』 『保赤推拿法』 『厘正按摩要術』 『幼科推拿秘書』 『推拿三字經』 『推拿指南』의 일곱 권의 책이 清代에 매우 널리 퍼져 推拿療法이 小兒科에 適用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結果 清代 推拿法이 크게 發展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곱 권의 책의 特徵이 곧 清代 小兒推拿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清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前人の 錯誤는 改正하고 長點은 더욱 발전시켰다.

둘째, 清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推拿 理論과 小兒生理特徵을 具體的으로 接木하였다.

셋째, 清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具體的 病症別 治療法을 體系的으로 論述하였다.

넷째, 清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小兒推拿를 輕視하는 當時 風潮를 批判하고 小兒推拿를 널리 普及하려 勞力하였다.

다섯째, 清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推拿 手技法과 藥의 關係를 整理하였다.

여섯째, 清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按胸腹法 等 多樣한 診斷法을 整理하였다.

일곱째, 清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複式手技法과 基本手技法을 結合하였다.

71) 查焯: 清代小兒推拿的學術特點, 南京中醫藥大學學報, 2001年12月第4期, p.188.

72) 清 駱如龍 著, 上海衛生出版社, 1957.

73) 清代醫家, 字潛庵, 曆陽(今安徽)人, 撰: 『幼科推拿秘書』五卷.

74) 清代醫家, 登州寧海人

75) 清代 河南南陽人 字系祥

陽學說, 五行學說 등 韓醫學의 基礎 理論들이 小兒推拿 理論과 成功的으로 接木되었는데 이것이 明清時期 小兒推拿 理論의 가장 重要한 特色이다.

III. 結 論

明清時期 小兒推拿에 關한 文獻의 考察을 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明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多様な 小兒 病症을 豫防하고 治療하는 重要한 手段으로 推拿法을 廣範圍하게 應用하였다.
2. 明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望診法을 重視하였다.
3. 明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小兒推拿 專門穴을 開發 및 應用하였다.
4. 明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手技法에 따른 補瀉를 重視하였다.
5. 明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藥摩之法을 開發 및 應用하였다.
6. 明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簡便한 使用을 위해 推拿治法을 歌訣化하였다.
7. 清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前人的 錯誤는 改正하고 長點은 더욱 발전시켰다.
8. 清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推拿 理論과 小兒生理特徵을 具體的으로 接木하였다.
9. 清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具體的 病症別 治療法을 體系의으로 論述하였다.
10. 清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小兒推拿를 輕視하는 當時 風潮를 批判하고 小兒推拿를 널리 普及하러 勞力하였다.
11. 清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推拿 手技法과 藥의 關係를 整理하였다.
12. 清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按胸腹法 등 多様な 診斷法을 整理하였다.
13. 清代 小兒推拿 專門家들은 複式手技法과 基本手技法을 結合하였다.
14. 明清時期 以前の 小兒推拿 理論은 氣血만을 重視하였으며, 陰陽五行 등 韓醫學의 基礎理論과는 接木되지 않았다. 그러나 明清時期 學者들에 의해 整體觀, 臟腑學說, 陰

參考文獻

1. 黃志傑 譯, 黃帝內經, 中國,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1999.
2. 傅維康 篇, 中國醫學史, 中國,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3. 中國歷史博物館 篇, 簡明中國文物辭典, 中國, 福建人民出版社, 1991.
4.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 編, 五十二病方, 中國, 北京, 文物出版社, 1979.
5. 葛洪研究會 編譯, 抱樸子內篇肘後備急方今譯, 中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6. 唐 王燾 撰, 外台備要,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7. 宋 蘇軾, 沈括 著, 蘇沈內翰良方,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8. 魯兆麟 主校, 針灸大成校譯, 中國,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9. 胡國臣 主編, 龔廷賢醫學全書, 原著 明 龔廷賢, 中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0. 清 熊應雄 輯, 小兒推拿廣意,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11. 清 張振鋈 輯, 厘正按摩要術, 中國, 北京, 北京市中國書店出版社, 1986.
12. 幼科三種, 台聯國風出版社, 中華民國64年版 (1975年版)
13. 查煒, 《保嬰神術》論小兒推拿, 中國, 按摩與導引 ; 18(3), 2002.
14. 江靜波 校定, 小兒推拿方脈活嬰秘旨全書, 中國, 江蘇人民出版社出版, 1958.
15. 林曉潔, 小兒推拿的起源及發展, 中國, 按摩與導引 ; (3), 1994.

16. 清 夏愚鑄 著, 幼科鐵鏡, 中國, 上海衛生出版社, 1958
17. 博維康 主編, 針灸推拿史
18. 夏雲集 著, 許敬輿 增釋, 增圖考釋推拿法, 中國, 北京, 中醫書局, 1955.
19. 查焯, 清代小兒推拿的學術特點, 南京中醫藥大學學報, 2001.
20. 清 駱如龍 著, 幼科推拿秘書, 中國, 上海衛生出版社, 1957.
21. 明 楊繼洲 著, 針灸大成, 中國, 岳麓書社出版社, 1993.